

## 하나님의 도움

**열왕기상(1 Kings) 17 장 8 -16 절** 마가복음(Gospel of Mark) 12:41-44

Nov 9, 2018

며칠 전 또 캘리포니아에서 총기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큰 식당에서 행사로 모여 있던 많은 대학생들을 향해 한 사람이 들어가 총을 갈겨 댔습니다. 이 젊은이는 미해병대 대원으로서 아프카니스탄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전투를 겪은 후 전쟁 외상 증후군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정신을 놓고 총기를 어린 대학생들을 향해 쏘아 대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어려움이 올때 그 고난을 불신자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 어려움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옫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자기의 신세를 원망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속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돕고 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옫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전에 듣고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한 시련과 고난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요, 다른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이 둘다 땅의 기근과 가뭄으로 먹을 음식과 물이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니다. 먹을 물이 점점 없어지고 곡식을 심지 못하니 먹을 음식이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합왕과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에 온 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가뭄과 기근으로 온 땅에 백성의 고통의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아합왕이 다스렸는데, 시돈 땅에 사는 이세벨이라는 이방여인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왔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잘못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왕상 17:1)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숨어듭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왕상 17:3-4)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는 요단강 앞에 그릿이란 시냇가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옵니다.

물은 시냇물을 먹으며 지냅니다. 문제는, 가뭄으로 이제 시냇물 까지 마르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선지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인간입니다. 물은 못먹으면 죽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8 절과 9 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가뭄으로 시내의 물이 마 르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본문 맨 앞에 있습니다. 즉 물이 마르자 마자 즉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행 동을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엘리야를

돕기위해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며 쉼곳을 예비하십니다. **고난속에 지켜만 보시지 않고 돕기 위해**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 **전혀 예상치 못함 도움의 방식**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8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과부는 누구보다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과부를 돌보야 한다는

말씀이 여러번 나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더구나 과부가 사는 동네 사르밧 (Zarephath )은 이방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도시로 누가 복음 4 장 26 절에는 사렙다라고 불리웁니다. 이스라엘은 이세벨의 고향 시돈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 당시 시돈은 이세벨 아버지 시돈왕 옛바알이 다스리고 있는 곳으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돈의 사르밧이란 동네로 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순종합니다. 더구나 아합이니 이세벨은 우상을 혐오하는 엘리야가 감히 시돈에 숨어 있을 거라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릴 시냇가에서는 율법에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엘리야가 전혀 생각치 못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식을 공급받기위해 과부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방 땅, 그것도 우상숭배의 중심지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4 장 26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영접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사르밧과부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는 이 가뭄에도 음식을 넉넉히 가진 과부가 있나 보다 생각했을 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의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어 말씀하신 과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인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영접하러 성문까지 나온 사람이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긴 여정에 목이 마른 목이 마른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릇에 물을 좀 담아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부탁이기 보다는 지시(directive)에 가깝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것은 그 여인이 다 준비하고 있겠구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의 요청에 대해, 이 여인이 대답을 했다고 쓰여있지 않습니다. 여인은 그저 물을 가지러 갑니다. 착한 과부는 물을 가지러 갑니다. 자기도 물이 거의 없을텐데 지쳐 보이는 여행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러 갑니다. 여인이 막 물을 가지러 가려 하는데, 엘리야가 여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 *당신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시오*"라고 말합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당시 과부에게 음식을 청하는 것은 무리한 요청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시 우상 중심지, 그것도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고향 시돈땅입니다. 이곳에서 선지자를 숨기고 먹여준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만일 고발이라도 한다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고발하는 사람은 이세벨로 부터 큰 상금을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과부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인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어쩌면 무모한 요구에 사르밧의 과부가 대답합니다. "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12 절)라고 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은 이 기근에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 뿐입니다. 한 사람의 한 끼 식사도 안되는 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장작으로 쓸 나무 가지와 돌을 주어 불을 지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신 과부는 이방 땅의 과부였습니다. 거기다 공급할 음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니다. 기근에 기쳐서 이제 죽기를 기다라는 절망에 빠진 과부였습니다..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서 주로 있었지만, 그 영향은 두로와 시돈에도 미쳤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옥수수를 먹고 살았기 때문이니다.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는 돈이 없으니, 땀감을 살 수도 없어 길거리에서 나무를 주어 모읍니다.

엘리야는 실망도 되었지만, 한편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방 땅에 그것도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만을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르밧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엘리야를 준비해 보내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것 처럼,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시켜 서로 돕게 하십니다.** 전혀 매치되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큰 기대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 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기꺼이 물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해서 그녀는 나는 아무 것도 나눌 것이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마지막 한끼 아들과 먹고 죽을 음식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거짓으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며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맹세한게 사르밧과부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즉 엘리야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이 여인에게는 줄 음식도 없습니다. 거기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엘리야를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망하는 신세인 엘리야를 숨기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에게 처럼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과부에게 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동을 주어 움직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하십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13-14 절) 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돕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전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음식을 자기를 먼저 먹이라고 하는 엘리야 요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쾌하고 어이없는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것이 이 여인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엘리야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14 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런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진게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그것 마저 내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같은 요구에  
순종한 이후에 과부에게 더 큰 축복이 채워질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사르밧과부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르밧과부를 향한 엘리야의 무리한 요구는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어차피 너희 상황은 한끼 먹고 죽으나,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진짜로 내가 너를 돕기 원하고, 너의 생명을 살리기 원하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벼룩이 간을 빼먹는 요구였는데, 그것이 진짜로 **이  
여인을 돕고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한끼 먹고 죽는 땅의 떡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사실 땅의 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사르밧과부의 인생과 같습니다.** 오늘 죽으나 미래에 죽으나 차이 지 땅의 떡만 의지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소망은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단지 시간 차이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 가진 것을 의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돕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때때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 살에 얻은 가장 귀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하고 대를 이어갈 것이니. 그런데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22 장에 기록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밤새 잠을 못자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대신 수양의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길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사르밧과부의 한 줌의 밀가루는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목숨 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조차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같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르밧 과부를 살리고 복주시기 위해서 입니다.** 사르밧과부가 엘리야를 께씸히 여기고 무시하고 돌아갔다면,

본인 말대로 한 끼 먹고 그 다음에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은 조금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극심한 기근에도 풍성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식구들 친지들까지 먹여가며 풍성히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는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사르밧과부가 엘리야에게 준 떡 한 조각은 그녀의 말대로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자신의 인생과 아들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근과 가난에 한 끼 먹고 죽고자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다른 식구들과 친지들까지 먹이는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르밧과 부는 내일의 희망의 없는 절망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민 도움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혹하기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우리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아와 사르밧과부를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믿음의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 성도 여러분! **하나님 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우리와  
동행하시고 매순간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형통할 때도  
있고 심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러도 인생 곳곳에서 사르밧 과부처럼 극한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르밧 의 한 과부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함께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계신분입니다. 사르밧과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